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개신교는 왜 역사를 강조하는가? 성경: 예레미야 42장 7-17절

Tag:

7 십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8 그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9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10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11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12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13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14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15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16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17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렘42:7-17)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한 예언자이다.

당시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믿지 아니하고 전쟁이 없다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믿었다.

전쟁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아세라에게 제사를 드리는 이유도 잘 살고 평안히 살고자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쟁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하셨다.

예루살렘 패망이후 바벨론 사람들은 총독을 세우고 군사를 머물렀다.(그달라, 귀족의 후예)

예레미야는 가나안 땅에 남겨진 백성들과 함께 할 것을 선택하였다. 그러나 암몬, 모압, 에돔에도 남겨진 자들이 있었고, 암몬의 후예들은 그달라를 암살할 목적으로 이스마엘(왕족의 후예)을 가나안에 보냈다. (정치적으로 암몬 족속들이 지역의 패권을 노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군대장관 요하난이란 자가 암살 계획을 사전에 파악하고 그달라에게 보고 했지만, 그달라는 그런 정치적 암투계획을 무시하고 이스마엘과 우호적인 관계를 꾀하려다가 죽임을 당하게 된다.

군대장관 요하난은 틀림없이 바벨론 군대가 다시 쳐들어와 자신들을 심판할 것이 두려워 애굽으로 피난 가려고 하다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요청하게 된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 때문에 요하난에게 자비를 베풀고자

하셨습니다. 그들이 안심하고 가나안땅에 거하도록 권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요하난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를 붙잡아 애굽으로 떠나게 된다.

결국은 바벨론이 애굽을 침공하게 되고, 그리로 피난한 무리들은 멸망을 당하게 된다.

남겨진 이들의 실책

1. 전쟁을 두려워 하였다.
2. 우상숭배를 멈추려고 하지 않았다.
3. 하나님께 대해 뜻뜻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두가지 역사 해석

1. 유다가 망한 이유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다.
2. 유다가 망한 이유는 아세라 상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역사의 사실과 해석은 무엇이 더 중요한가?

-사실도 중요하고 해석도 중요하다. (오늘날, 해석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자들에 의해서 심지어 역사적 사실도 왜곡되고 있다. 자신들의 해석에 불리한 사실은 은폐한다. 심지어 거짓말도 보탠다.)

-사람들은 역사적 단편만 알고, 함부로 해석한다.

-역사의 진면목을 알면 더 정확하게 해석한다.

-개신교의 역사해석; 하나님을 신뢰하는 역사해석. 전쟁의 두려움에 싸이지 않는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개입을 믿는다. 역사의 단편만 보지 않고 전체를 보면서 해석한다.(성실하고 열심히 공부한다.)

-두려움, 두려움을 조장하는 소문에 대한 거짓된 믿음, 자신의 소유를 놓치지 않으려는 욕심은 사리판단을 흐트러뜨리고 결국에는 거짓된 역사 해석을 산출한다.

-하나님은 갈대아 사람들의 보복이 예상되지만, 가나안에 남아 살기

로 걱정하면 도와주시겠다고 제안하셨다. 즉, 예언이란 하나님과의 거래로 봐야 한다. (우려했던 대로 바벨론에서 심판하러 오겠지만, 내가 그 심판을 막아주겠다 하심.)

-하나님의 역사 개입을 의뢰하거나 믿거나 하면 하나님께서 더 후하게 역사에 개입하시겠다는 의사를 밝히신다는 뜻.

-왜 개신교는 역사를 강조하는가? 그것은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개입하신 흔적이 남겨있기 때문이고, 그 결과로 인한 복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현재 나의 상황이 어떻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개입하신다. 그리고 상황을 개선시키신다. 단, 개입의 조건은 순종이다.

-현 정부는 공산주의 이론을 실험하고 있다. 막스는 결국 사회는 공산주의로 간다는 이론을 펼쳤다.

-미국의 패권을 부정하고 중국의 품에 안겨 전쟁없는 평화를 꿈꾸고 있으며, 노동자들의 유토피아를 상상하고 있다.

-현재 하나님은 한국을 채질하고 계신다. 옥석을 가르신다는 뜻이다.

-그 방법으로 '과거사 해석'이라는 카드를 제시하셨다. (해석 전쟁)

-현 정부는 과거사를 들먹이며 자신있게 새로운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

-한국의 현대사를 제대로 파헤쳐서 자신들의 해석을 공식화 하겠다는 야심에 차있다.

-작계는 여야의 대립이며, 국가적으로는 남북의 대결이며, 세계적으로는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며, 국제적으로는 러, 중, 북한과 미, 일, 남한의 대립이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역사 개입과 주체사상의 대립이다.

-주체사상 옹호론자들은 지지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인권운동가, 패

미니스트, 동성애자, AIDS환자, 무정부주의자, 반정부단체, 환경론자, 반기독교세력과 같은 소수 집단들과 연대를 이루고 있다. 그들의 잘못된 사상이 함께 뒤섞여 있다.

-과거사 해석의 도마에 오른 역사는 5.18, 6.25, 박정희, 이승만, 위안부, 베트남전쟁, 독립운동 등이 될 것이다.

-이 해석전쟁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 편에 서는 자가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 편에서 전쟁을 하는 자는 승리할 것이며, 전쟁을 두려워하거나 도망하는 자는 전리품을 챙기지 못할 것이다.

-전쟁에서 좌우의 프레임에 갇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그렇게 하면 이겨도 진다.) 우리의 전쟁은 선과 악의 전쟁이요, 진리와 거짓의 전쟁이요, 하나님의 기적과 인간의 전쟁이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개입하시도록 초청하자.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걷자. 룯과 같이.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찬양예배>

제목 : 복음의 진수 성경: 마가복음 11장 1-11

Tag: